

유배우자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순례, 이홍직
메가 원격평생교육원, 강남대학교

유배우자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순례*
메가 원격평생교육원 운영교수

이홍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주제분류 사회복지학

주제어 유배우자 여성장애인 근로자, 자기효능감, 일상생활만족도, 직무만족도

요약문 본 연구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 간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고용 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고용 패널' 2차 웨이브 7차 자료(2022)의 메인 버전 4,577명 중 여성 장애인 근로자 272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고 데이터 분석에는 SPSS와 Macro PROCESS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배우자 여성 장애인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도 간 직무만족도는 이들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유배우자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언을 전달하였다.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34.6%이며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021년을 기준으로

* 주저자

** 교신저자

22.2%이다. 이는 남성 장애인 43.8%에 비해 낮은 편이다. 비 장애인 여성의 고용률이 2023년 7월 기준, 61.8%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여성 장애인의 취업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3).

“전세계자살률 1위, 출산율 226위” 라는 현실이 말해주듯이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은 물론이고 여성 장애인이 살기 힘든 나라이며 이들은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교육 수준과 고용 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도된다(〈더인디고〉, 2022). 이는 여성 장애인의 삶과 일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혼 취업 여성은 일과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역할수행을 감당하기 어려워 역할의 과중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근로자 역시 일반여성이 갖는 특성과 장애 여성이 가지게 되는 특수성을 동시에 갖고 취업한 경우에는 가족, 가치관, 부모와의 동거 여부, 남편의 취업반대 정도, 전통적인 인식 등에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 시간의 압박을 받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박미량, 2016; 장영은 외, 2011). 아울러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남성보다 여성이 양육 및 돌봄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담당해 왔다. 물론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나 여성 장애인은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장애와 취업이라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결혼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와 돌봄까지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혼자 살아가기보다 다양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장애인의 심리적 상태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은 일상생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강수연·주란, 2020; 김석건·고정훈, 2021).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에서 기인한 고충까지 가중되는 상황은 낮은 직무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송다영 외, 2021; 송진영·황치정, 2013). 이러한 측면에서 기혼인 동시에 일을 하는 여성 장애인의 심리적 변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이 일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삶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 선행된 기존의 연구는 비장애인 여성 중심 연구나 유배우자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실태,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등이 보고된 정도이다(오혜경, 2022; 유재이·김경미, 2023). 따라서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들의 관계를 통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매우 소수(김미경·고정훈, 2021; 송진영, 2016)이다. 또한 여성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역할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감 파악에 있어서는 직무의 만족감과 장애인의 심리적 변인인 자기효능감,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고 이들의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인 간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배우자가 있는 근로 여성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배우자가 있는 근로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일상생활만족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배우자가 있는 근로 여성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직무만족도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II. 문헌고찰

1. 일상생활만족도

선행연구에서 보고되는 일상생활 만족도는 학자들에 따라 삶의 만족도, 생활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주요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eugarten et al (1961)은 일상생활에서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Fujita와 Diener(2005)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만족하는 것을 인지적 측면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란 다양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삶에서의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포괄하는 상태의 전반적인 만족감으로, 지각한 주관적 감정을 반영한 만족, 긍정적인 정서를 포함한 주관적 안녕감, 의식주에 관한 평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경제 상황, 가족 관계에 관한 평가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제시된다(김미경·고정훈, 2021; 박소연·박소영, 2018; 최순례·이홍직, 2022). 또한 삶의 만족에 관해 상반된 관점에서 중증의 장애 및 질병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관한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나 직업의 질적인 변화가 삶의 만족도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 보일 수 있으며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으로 제시된다(박중석 외, 2021; 송진영, 2012). 즉 고용의 질과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 직무만족도의 영향력에 관한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할 것이라 보여진다. 아울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학력, 소득, 차별, 장애정도, 취업 여부 등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김자영·한창근, 2016). 이는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며 자신이 생각한 것을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으로 주장된다(Bandura, 1977; 2022) 이는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변인 중에서 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직업 능력 등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였을 때는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오성은 외, 2021)와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상반되어 보고된다(연은모 · 최효식, 2021).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삶에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된다.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라고 볼 때, 긍정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대인관계나 일자리의 만족감 등이 향상되어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에는 장애인의 직업적 환경 및 개인적 특성에서 기인한 영향 등에 따라 상반된 연구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의 상태로 개인이 직무에서 갖게 되는 긍정적인 정서 및 심리상태”이다. 즉, 직무와 환경을 포괄하며 직무에 대한 정서적 감정의 반응과 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장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개인적인 욕구 충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라는 것이다(박광표 · 김동철, 2015; Locke, 1976). 또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근로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직무만족도를 떨어트리거나 높일 수 있지만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제시되어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이채식 · 김명식, 2011). 아울러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장애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장애정도 및 특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경험한 배경 중심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결과가 제시된 것이므로 직무만족도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유수형 · 조상미, 2021).

장애인의 장애의 정도는 차별경험이 심하지 않으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김자영, 2018; 선민정 · 주영하, 2023). 즉, 사회적으로 경험한 환경적 요인이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환경적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자기효능감, 일상생활만족도,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 노인, 중장년 등 일반인의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며 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상반되어 제시된다(김자영, 2020; 염인숙, 2019).

정일영(2017)은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자아통합 등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일자리에 더욱 만족하게 되고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권성현, 2019; 연은모 · 최효식, 2019). 또한 송진영(2016)은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즉, 직무만족도라는 매개요인이 자기효능감으로 인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유사선행연구에는 심리적 변인 중 하나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등이 직무만족도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직장에서 상사와 대인관계가 좋고,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높다고 주장되며 직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과정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권오형 · 문재우, 2018; 이형하 외, 2023).

장애인의 심리적 변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자신감과 도전하는 능력,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포괄하고 있으며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변인 사이에서 매개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김미경 · 고정훈, 2021).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문헌을 근거로, 배우자가 있는 근로 여성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 간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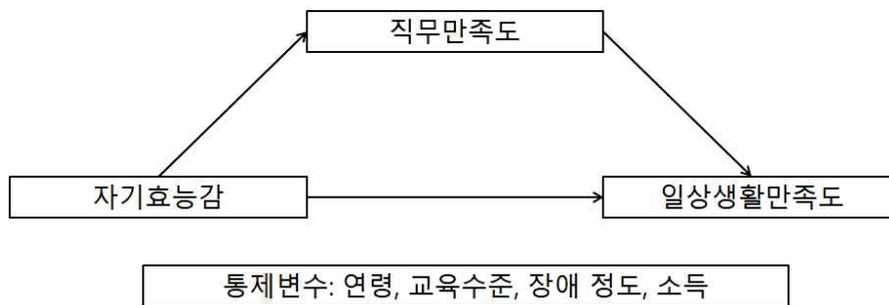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의 2차 웨이브 메인 데이터 중 7차 자료(2022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 조사’ 자료는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패널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2차 웨이브는 정책연구형 패널조사라는 목적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3). 2차 웨이브는 7차 자료의 공개된 자료 형태로는 가공방식에 따라 롱 데이터, 와이드 데이터 메인 데이터로 구분되며 메인 데이터는 각 해에 조사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7차 자료의 메인 데이터 응답자 4,577명 중 배우자가 있는(기혼이거나 동거하고 있는) 근로 여성장애인 272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배우자가 있는 근로 여성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측정도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일상생활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는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살고 있는 곳, 요즘 건강상태, 한달 수입, 여가활동, 하고 있는 일, 결혼생활, 일상생활의 전반적 만족도, 총 9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측정은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계수는 .810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은 Schwarzer과 Jerusalem(1995)가 개발한 척도로 “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는 해낼 수 있다”, “목표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나는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쳐도 당황하지 않는다”,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낼 것이라고 믿는다”, “내 재능 덕분에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다”, “어떤 문제에 부딪칠 때 나는 보통 몇 가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누군가가 내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해결해 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계수는 .871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는 미네소타대학의 직업심리연구소 미네소타지수와 Smith et al(1969) 등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 등에 근거하여 활용되고 있는 항목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부분 수정한 것이다.

본 연구의 각 문항은 “○○님은 이 일자리(직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별로 말씀해 주세요.”에 관한 질문 10문항과 그렇다면 ○○○님은 이 일자리(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로 총 11문항을 활용하였다. 직무만족도 변수는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하고 싶은 일의 내용, 근로 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 장애에 대한 배려와 편의, 현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로 구성된 11문항의 평균이다. 각 문항의 척도는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직무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839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통제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교육수준, 장애정도를 선정하였다(유재이·김경미, 2023). 연령은 50세 미만=0, 50세 이상= 1,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0, 고졸 및 대졸 이상=1,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0으로 이원화하여 측정하였고 소득은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변수로 제시되어 있는 연속 변수를 활용하였다.

4. 분석방법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만족도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인 t-test, 분산분석을 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로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다섯째,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값과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검토하였다. 여섯째,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 후 효과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50세 미만	105	38.6
	50세 이상	167	61.4
교육수준	중졸 이하	78	28.7
	고졸	112	41.2
	대졸 이상	82	30.1
장애정도	심한 장애	62	22.8
	심하지 않은 장애	210	77.2
소득	183.81±107.13 (평균 및 표준편차)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는 105명(38.6%), 50세 이상인 경우는 67명(61.4%)으로 나타나 50세 이상의 연령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78명(28.7%),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112명(41.2%)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은 82명(30.1%)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에 있어 장애가 심한 경우는 62명(22.8%), 심하지 않은 장애는 210명(77.2%)으로 나타나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의

평균은 183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만족도와의 차이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연령을 살펴보면, 50세 미만의 집단이 평균은 3.65로 50세 이상 집단의 평균 3.58보다 0.07 평균이 높았으나 t값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의 평균은 3.69로 중졸 이하와 고졸이 상의 평균이 각각 3.48과 3.61이라는 것에 비해 높은 평균 차이를 보였고 분산분석의 결과 값(F=4.047 p<.05)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평균은 3.54로 심하지 않은 장애의 평균 3.63보다 0.09보다 작게 나타났지만 일상생활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만족도의 차이

변인	구분	M±SD	t-test /F-value
연령	50세 미만	3.65±.458	.128
	50세 이상	3.58±.464	
교육수준	중졸 이하a	3.48±.460	4.047* a,b<c
	고졸b	3.61±.442	
	대졸 이상c	3.69±.474	
장애정도	심한 장애	3.54±.442	.129
	심하지 않은 장애	3.63±.467	

*p<.05

3. 자기효능감, 일상생활만족도, 직무만족도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00(SD=.427), 매개변수인 직무만족도의 평균은 3.44(SD=.491), 종속변수인 일상생활만족도의 평균은 3.61(SD=.462)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은 2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확보했다 볼 수 있다(Curran, et al., 1996).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기효능감	1.00	4.00	3.00(.427)	-.717	.296
직무만족도	2.18	4.91	3.44(.491)	.085	-.158
일상생활만족도	2.33	4.89	3.61(.462)	-.089	.130

4. 자기효능감, 일상생활만족도,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는 .203, .309, .358 순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1		
직무만족도	.203**	1	
일상생활만족도	.358***	.309***	1

** $p < .01$, *** $p < .001$

5.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 간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배우자가 있는 여성 장애인근로자의 대인관계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분석의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1단계 모형($F=5.686, p < .001$), 2단계 모형($F=5.705, p < .001$), 3단계 모형($F=6.838,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 모형에서 12.9%, 2단계 모형은 12.9%, 3단계 모형에서는 17.7%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2.28로 잔차의 독립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값)는 1.02에서 1.34의 값으로 모두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 모형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beta=.175, p < .05$), 2단계 모형에서는 자기효능감($\beta=.279, p < .001$), 3단계 모형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를 투입한 결과, 자기효능감($\beta=.238, p < .01$), 직무만족도($\beta=.233, p < .01$)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는 부분 매개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단계	변수	B	SE	β	t	F	R2 (adj) R2
1 직무만족도	통제변수	연령	.079	.074	.080	1.063	5.686*** .129 (.106)
		교육수준	.081	.050	.124	1.599	
		장애정도	.016	.080	.013	.196*	
		소득	.001	.000	.250	3.473**	
	자기효능감	.214	.084	.175	2.530*		
2 일상생활만족도	통제변수	연령	-.014	.068	-.015	-.201	5.705*** .129 (.107)
		교육수준	.084	.046	.142	1.838*	
		장애정도	-.042	.073	-.039	-.578	
		소득	.000	.000	.064	.888	
	자기효능감	.311	.078	.279	4.043***		
3 일상생활만족도	통제변수	연령	-.030	.066	-.034	-.459	6.838*** .177 (.151)
		교육수준	.067	.045	.113	1.492*	
		장애정도	-.045	.071	-.042	-.640	
		소득	-.005	.000	.006	3.483	
	자기효능감	.266	.076	.238	1.260**		
	직무만족도	.213	.064	.233	3.319**		

* $p < .05$, ** $p < .01$, *** $p < .001$

6.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 간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 모델 4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헤이즈(Hayes, 2013)가 제안한 Bootstrapping 방식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것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도출된 결과값은 .046으로 95%의 신뢰구간에서 .004(하한값), .106(상한값)으로 나타났다.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자기효능감 → 직무만족도 → 일상생활만족도	.046	.026	.004	.106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제7차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유배우자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간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이들의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배우자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은 5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나 장애 정도는 일상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교육수준에서 대학졸업자 이상만이 일상생활만족도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장애인의 교육수준, 즉 학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고민석과 김동주(2014)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1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수인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2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직무만족도를 투입하자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 역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 간 직무만족도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송진영(2016)의 연구는 부합되며 임금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경험과 생활만족도 간 직무만족도는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박종빈·백영은, 2022)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통제변수에 있어서 교육수준은 직무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소득과 장애정도는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변수에 관한 인구사회적 특성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배우자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전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배우자 여성 근로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유배우자 여성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동성 확보와 공교육의 확장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실무교육 기회 제공도 요청된다.

둘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모두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혼이며 자녀 및 손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면 이에 따른 탄력적 시간과 육아 관련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근로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돌봄 등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심리적 지원, 시간 및 서비스 지원차원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선행되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정도가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장애 정도를 고려한 활동보조 서비스와 직장의 동료 및 가족 간 관계증진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참여 등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향상된 자기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의 업무에 관해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멘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2차자료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고 결혼을 했거나 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 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대상자들에 관한 연구는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장애인에게도 예외적이지 않으며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심의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미디어생활〉, 2023). 이와 관련한 장애, 돌봄, 빈곤의 문제 등 중고령 여성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이 고려된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연 · 주란, 2020, 「발달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과 취업여부의 관계: 여가 및 사회활동참여와 취업관련 조력자 여부의 인과다중매개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0(1): 5-30.
- 고민석 · 김동주, 2014, 「경제활동상태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2): 137-164.
- 권성현, 2019, 「장애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국가정책연구』, 33(2): 171-207.
- 권오형 · 문재우, 2018,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8(6): 327-333.
- 김미경 · 고정훈, 2021, 「근로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7): 546-557.
- 김석건 · 고정훈, 2021, 「임금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용형태의 조절효과와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96-808.
- 김자영, 2018,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8(3): 363-391.
- 김자영, 2020, 「발달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0(1): 25-50.
- 김자영 · 한창근, 2016, 「자산수준과 취업여부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6(3): 5-30.
- 박광표 · 김동철, 2015, 「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직무적합성과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5(4): 57-88.
- 박미량, 2016,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7(2): 37-70.
- 박소연 · 박소영, 2018,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결정요인과 우울증상에 관한 종단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129-163.
- 박종빈 · 백영은, 2022, 「임금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3(1): 34-60.
- 박중석 · 이성규 · 신용석, 2021,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직업 능력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1(4): 77-106.
- 선민정 · 주영하, 2023,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수용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장 내 차별경험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3(2): 159-177.
- 송다영 · 김미주 · 최희경 · 장수정, 2021, 『여성복지론』, 양서원.
- 송진영, 2012, 「장애인의 취업 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 성별과 장애정도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2(3): 23-47.
- 송진영, 2016, 「산업재해요양 이후 원직장복귀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6(3): 65-94.
- 송진영 · 황치정, 2013, 「직장기혼여성의 부부갈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사노동분담만족도의 조절

- 효과 검증», 『비관사회정책』, (40): 118-148.
- 연은모 · 최효식, 2019,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수용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잠재집단별 생활만족도, 직무만족도 차이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133-152.
- 연은모 · 최효식, 2021, 「성인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역량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4): 273-280.
- 염인숙, 2019,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472-486.
- 오성은 · 김서희 · 김아란 · 최지원 · 신성만, 2021, 「근로장애인의 다차원적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Korman의 일치성 이론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1(1): 293-322.
- 오혜경, 2022, 「기혼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실태」, 『재활복지』, 6(2): 55-81.
- 유수형 · 조상미, 2021, 「직무만족은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1(4): 23-51.
- 유재이 · 김경미, 2023, 「유배우자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장애와 고용』, 33(1): 227-252.
- 이채식 · 김명식, 2011,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제3회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논문집, 483-506.
- 이형하 · 박인아 · 방희명 · 김진희, 2023, 「임금근로 지체장애인의 직무능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조직 적응능력과 직무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2), 461-474.
- 장영은 · 박준원 · 이승미 · 권보라, 2011, 「유자녀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정 균형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9(2): 63-72.
- 정일영, 2017,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2(4): 423-438.
- 최순례 · 이홍직, 2022, 「여성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생명연구』, 64: 169-18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3,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1-7차년도 조사자료 이용자 가이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Bandura, A., 1977, "Self-Efficien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2002, "Social cognitive theory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1: 269-290.
- Baron, R. and Kenny, D. A., 2013,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urran, P. J., West, S. G. and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Fujita, F. and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Hay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Publications.

- Hay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NY: Guilford Publications.
- Locke, E. A., 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M. D.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IL: Rand McNally, 1297-1343.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and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Schwarzer, R. and Jerusalem, M., 1995,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 In J. Weinman, S. Wright, and M. Johnston, *Measures in health psychology: A user's portfolio. Causal and control beliefs*, Windsor, UK: NFER-NELSON, 35-37.
- Smith, L. M., Kendall, and Hulin, C. L., 1969,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and Retirement*, Chicago: Rand McNally.
- 고용노동부, 2023,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노동부 e-고용지표 성별 장애인고용률」, https://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73, (검색일: 2023.08.22.)
- <더인디고>, 2022, 「성과 장애로 차별받는 이들을 보라...」, <https://theindigo.co.kr/archives/31830> (검색일: 2023.09.18.)
- <미디어생활>, 2023, 「[특집] 고령화되고 있는 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고령장애인, 50세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정의해야”」,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28> (검색일: 2023.09.01.)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Daily Life Satisfaction of Female Workers with Disabilities Who Have Spous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Choi, Soonlye
(Mega-Md)
Lee, Hongjik
(Kangnam University)

Subject Social Welfare

Key words Female Workers with Disabilities Who Have Spouses, Self-efficacy, Daily Lif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Summar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daily life satisfaction by female workers with disabilities who have spouses, to enhance daily life satisfaction of them. For this analysis, the data from 272 female workers with disability among 4,577 from the main versions for the 2nd wave data of 7th(2022)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releas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diating effect analysis, SPSS and Macro PROCES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elf-efficacy of female disabled workers who have spous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aily life satisfaction. Second,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rd, it was found that job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between self-efficacy and daily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it delivere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daily life satisfaction of female workers with disabilities who have spouses.

접 수 일 : 2023년 10월 16일

심사완료일 : 2023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1월 5일